인구고령화의 국제동향과 경제·사회적 의미

鄭京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다음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부르셀에서 UNFPA와 벨기에의 CBGS가 공동주체한 인구고령화에 관한 전문가회의(ICPD +5 Technical Meeting on Population Ageing)에서 발표된 논문에 기초하여 인구고령화의 국제적 동향과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를 정리한 것이다.

1. 인구고령화의 국제동향

지구상의 60세 이상의 인구가 1998년도 현재 5억 7900만명을 넘어서 전인구의 10%를 이루고 있으며, 2050년에는 19억을 넘어서 세계 인구의 21%를 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8년도 현재 60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은 선진국에서 가장 높아 19%에 달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7%로 인구변천의 초기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후진국의 경우는 그 비율이 5%로 가장 낮다. 개별국가 중 그리스와 이태리가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60세 이상의 비율이 23%에 달하고 있다. 2050년에는 선진국의 31%, 개발도상국의 19%, 후진국의 12%를 점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는 0~14세 연령층의 인구와 비슷한 규모로 노령인구의 증가와 아동인구의 감소라는 과정에 의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아동과 노령인구의 수가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표 1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령인구의 대부분(1998년 현재 53%)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이 유럽으로 세계 노인인구의 25%가 거주하고 있다(표 2 참조). 세계 노인인구 중 아시아 거주자의 비율은 2050년에는 61%로 증가하는 반면, 유럽거주자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11%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1. 총인구대비 특정 연령군 추정

(단위: %)

지역		1970년	1998년	2025년	2050년
15세 이상 연령군	전세계	37	31	24	21
	선진국	26	19	16	17
	개발도상국	42	33	26	21
	후진국	44	43	35	24
	아프리카	45	43	35	24
	아시아	40	31	23	20
	유럽	25	18	15	16
	라틴아메리카	42	32	24	20
	북아메리카	29	22	19	19
	오세아니아	32	26	22	20
60세 이상	전세계	8	10	15	21
	선진국	15	19	27	31
	개발도상국	6	7	12	19
	후진국	5	5	6	12
	아프리카	5	5	7	12
	아시아	6	8	14	22
	유럽	15	20	27	33
	라틴아메리카	6	8	14	22
	북아메리카	14	16	25	27
	오세아니아	11	13	19	24
80세 이상	전세계	1	1	2	3
	선진국	2	3	5	8
	개발도상국	0.4	1	1	3
	후진국	0.3	0.3	0.4	1
	아프리카	0.3	0.4	1	1
	아시아	0.4	1	1	3
	유럽	2	3	5	8
	라틴아메리카	1	1	2	4
	북아메리카	2	3	4	7
	오세아니아	1	2	3	5

자료: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the World Populations,* the 1996 Revision, Medium Variant Projections, 1996.

80세 이상의 후기노인은 현재 6400만명으로 대부분이 선진국에 거주하고 있고, 2800만명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후기노인은 전세계인구의 1%를, 선진국의 3%를 차지하고 있다. 후기노인은 노령인구 중 가장 성장속도가 빨라 2050년에는 그 수가 현재의 5배가 될 것으로 추정되어 전인구의 3%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선진국의 경우 12명중 1명은 80세 이상의 노인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표 2. 15세 이하 연령군과 60세 이상 연령군의 지역적 분포

(단위: %)

	15세 이하 연령군			60세 이상 연령군		
	1970년	1998년	2050년	1970년	1998년	2050년
전세계	100	100	100	100	100	100
선진국	19	12	10	47	39	19
개발도상국	81	88	90	53	61	81
후진국	10	15	21	5	5	10
아프리카	12	19	26	6	7	12
아시아	62	61	56	45	53	61
동부아시아	27	20	17	23	27	24
(중국)	(24)	(18)	(15)	(18)	(21)	(20)
동남아시아	9	9	8	5	6	9
남중부 아시아	24	28	27	15	17	25
(인도)	(16)	(18)	(16)	(11)	(13)	(17)
서부 아시아	3	4	4	2	2	3
유럽	12	7	5	33	25	11
라틴아메리카	9	9	9	6	7	9
북아메리카	5	4	4	10	9	5
오세아니아	0.4	0.4	0.5	1	1	1

자료: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the World Populations,* the 1996 Revision, Medium Variant Projections, 1996.

출산력과 사망력 감소의 누적적인 결과는 2050년 이후에 더 극명하게 나타나, 2150년에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33억으로 3명중 1명은 60세 이상이 될 것이며, 80세 이상은 12억으로 10명중 1명은 8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15세 이하의 아동은 현재 전인구의 33%에서 18%로 감소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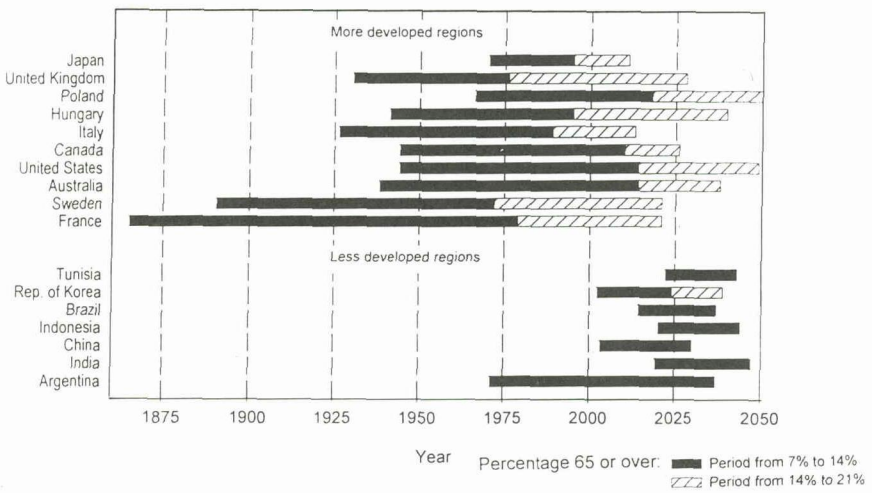
가. 고령화 속도

지금까지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고령인구의 증가에만 관심이 두어져 왔지만, 더 큰 정책적 의미를 갖는 것은 고령화 속도이다. 급격한 연령구조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보다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금제도,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성장과 같은 국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속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훨씬 급격하다.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14%, 21%에 달하는 시점을 비교해 보면 7% 수준에 일찍 도달한 국가들의 경우 7%에서 14%로 변화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그림 1 참조). 예를 들면, 1900년 전에 7% 수준에 도달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7%에서 14%에 도달하기까지는 각각 114년과 82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25년(1970~95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한국, 투니지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25년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고, 중국과 인도의 경우는 27년내지 28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경우 14%에서 21%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7%에서 14%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다. 아직 65세 이상 인구가 전인구의 21%에 달하는 국가는 아직 없지만, 이태리나 일본과 같은 몇몇 국가들은 2015년 이전에 2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4%에서 21%가 되는 데는 16년이, 이태리의 경우는 24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고령인구의 증대뿐만 아니라 급격한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14%, 21%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자료: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the World Populations,* the 1996 Revision, Medium Variant Projections, 1996.

나. 성비

고령인구의 경우 절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많다(표 3 참조). 60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1998년 현재 100명의 여성당 81명의 남성이 있고, 80세 이상의 경우는 100명의 여성당 오직 53명의 남성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고령연령층에서의 여초현상은 선진국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현재와 같은 성비와

고령인구의 급증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체인구 성비(여성 100명 대비 남성의 수)의 감소, 고령여성의 증가 등이 예견된다. 1998년부터 2050년 사이에 60세 이상의 인구는 남성 6억 3700만명, 여성 7억 22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80세 이상의 경우는 남성 1억 200만명, 여성 1억 5400만명 증가할 것이다.

표 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연령군별 성비(1998년: 100명의 여성당 남성수)

연 령	전세계	선진국	개발도상국
0~ 4세	105	105	105
5~ 9세	105	105	106
10~14세	105	105	105
15~19세	105	105	105
20~24세	105	104	105
25~29세	105	104	105
30~34세	104	103	104
35~39세	103	102	104
40~44세	103	100	104
45~49세	102	98	103
50~54세	100	97	102
55~59세	97	93	100
60~64세	94	97	97
65~69세	89	81	93
70~74세	79	70	87
75~79세	70	59	79
80세 이상	53	44	66
60세 이상	81	70	89
전 체	102	95	103

자료: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the World Populations,* the 1996 Revision, Medium Variant Projections, 1996.

다. 부양비

인구학적 부양비는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와 같이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에 의하여 추정된다. 1970년부터 유년부양비는 전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증가하고 있다(표 4 참조). 개별 지역과 국가에서의 부양비는 고령인구와 유년인구의 상대적인 규모와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1970년부터 1998년까지 총부양비는 감소해 왔다. 선진국의 경우 총부양비가 1970~98년 기간 중에는 56에서 49로 감소하였지만, 이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72가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총부양비가 1970년에 84로 선진국보다 높았지만, 1998년에는 62로 감소하였고, 2025년에

표 4. 지역별 연령별 부양비

지 역		1970년	1998년	2025년	2050년
총부양비	전세계	75	59	52	55
	선진국	56	49	58	72
	개발도상국	84	62	51	53
	후진국	90	86	64	47
	아프리카	92	87	65	47
	아시아	80	57	48	55
	유럽	56	48	55	73
	라틴아메리카	87	60	50	58
	북아메리카	62	52	61	67
	오세아니아	65	55	56	61
유년부양비	전세계	66	49	37	32
	선진국	41	28	26	29
	개발도상국	77	54	39	32
	후진국	84	80	58	36
	아프리카	86	81	58	36
	아시아	73	49	34	31
	유럽	39	27	24	28
	라틴아메리카	79	52	35	32
	북아메리카	46	33	31	31
	오세아니아	53	40	35	32
노년부양비	전세계	10	11	15	23
	선진국	15	21	32	42
	개발도상국	7	8	12	21
	후진국	6	6	6	11
	아프리카	6	6	7	12
	아시아	7	9	14	25
	유럽	16	21	31	45
	라틴아메리카	8	8	14	26
	북아메리카	16	19	30	36
	오세아니아	12	15	21	30

자료: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the World Populations,* the 1996 Revision, Medium Variant Projections, 1996.

는 51까지 감소한 후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노년부양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1970년부터 205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증가하였다. 1998년부터 2050년 사이에 노년부양비는 선진국에서는 2배,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거의 3배로 증가할 것이다.

부양비의 규모와 변화속도는 국가별로 다양한데, 이는 부양비가 급격한 출산

력의 저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력은 몇 년후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장기간 지속적인 출산력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따라서 전체 부양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어 1970년부터 2050년까지 6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견된다. 출산력이 1970년 이후 급강하여 1990년대 전반부에 이미 1.2수준에 도달한 이탈리아의 경우는 총부양비가 처음에는 감소하였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상의 부양비가 압도하여 2020년 이후 총부양비를 급증시킬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1970년 이후의 급격한 출산력의 저하를 경험하여서 1998년에 총부양비가 39라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총부양비는 2015년까지는 눈에 띄는 증가가 없을 것이지만, 그 후 매우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케냐의 경우는 매우 높은 유년부양비를 보이고 있어서 총부양비가 1980년의 경우 115에 달하고 있다. 이는 케냐가 세계에서 출산력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1960~1980년 기간 중 여성 1명이 평균 8.1명의 자녀를 출산했었기 때문이다. 1998년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15세 이하 인구는 30년전의 한국 수준과 유사하다.

2.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

가. 경제성장 및 저축·투자

인구학적 요인은 언제나 경제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경제성장은 저축에 의해서 촉진되기 때문에 연령구조의 변화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년부양비가 높을수록 가구저축이 저하된다는 것이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는 저축률이 경제활동 말기에 최고점을 이룬 후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국가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인구학적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많은 국가가 국가저축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고령화의 가장 큰 영향력은 일본에서 볼 수 있다. 추정되는 2020년의 고령화율에 의하면 1995년의 고령화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GDP의 규모가 14% 정도 축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과 미국도 영향을 받아서 2020년에 각각 4.5%와 2.4%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가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동력의 감소, 가구저축의 감소, 연금과 보건의료관련 정부지출의 증가라고 하는 3개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다.

나. 노동력

인구학적 변화는 노동력의 크기, 연령구조, 구성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 12개국의 경우 1975~95년까지 노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성장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고용창출의 부족과 더불어 이러한 노동인구의 성장은 유럽에서 높은 실업률을 초래하였다. 2010년 이후에나 노동연령층의 규모가 축소하기 시작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인구학적 압력이 저하될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선진국 노동시장은 고령남성의 유례없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로 특징지워진다. 60~64세 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는 1960년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까지 급증한 후 매우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55~5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서서히 감소하였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대연명의 증대, 건강상태의 증진, 교육수준의 증대 등과 함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특기할만 하다. 가장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국가는 벨기에, 이탤리, 프랑스, 네덜란드로 1996년의 경우 60~64세 연령군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독일, 스페인, 미국 등도 이보다는 그 규모가 적지만 유사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퇴를 전후한 소득의 차이, 실업률, 연금급여의 크기, 세금구조와 인플레이션율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이 이러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직업만족도, 건강상의 문제, 장애여부, 여가에 대한 욕구, 피부양자의 존재유무 등과 같은 요인들도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고령남성의 비경제활동참가는 연금급여의 증대와 용이한 수급권 획득에 기인한 결과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상대적인 크기에 대한 합의는 없는 상태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은퇴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감소하여 1950년과 1990년 기간 중 6년 감소하였고, 평균 은퇴기간이 남성의 경우는 11년에서 17년으로 여성의 경우는 14년에서 23년으로 증가하였다.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 1995년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는 60~64세 연령군의 남성중 2/3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44%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표 5 참조). 개발도상국의 고령남성들은 퇴직금의 적용범위가 좁고 그 액수도 매우 적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경우도 43%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다. 반면 고령여성의 경우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어서 선진국의 경우는 60~64세 연령군의 23%가,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31%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고령화가 경제활동참가를 저하시키고 노동력의 평균연령을 높힌다는 가설은 아

표 5. 고령연령층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선 진 국	남 성	76	44	13
	여 성	42	23	6
개발도상국	남 성	86	69	43
	여 성	44	31	14

자료: ILO, *Estimates and Projection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1950~2010,* Fourth Edition, Geneva, 1996.

직 서구 유럽국가에서 확증되지 않았다.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증가에 의해서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는 않은 반면, 고령남성의 조기 은퇴가 노동력의 고령화를 상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된 노동력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하는 인식과 관련하여, 연령과 생산성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많은 연구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다. 연금체계

연금체계는 미래 국가의 생존능력과 지불능력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관심사이다. 많은 국가들이 현재의 연금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전통적인 부가체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금과 관련된 지출에 있어서 인구노령화뿐만 아니라, 기여와 급여의 수준, 은퇴연령, 조기은퇴나 장애연금관련 수급자격, 경제활동참가, 실업률, 경제성장, 비공식부문의 크기과 세금체계 등과 같은 비인구학적 요인들도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연금과 관련하여 서구국가들이 지난 20년간 경험해온 재정적인 압박은 연금제도가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기능 즉, 조기은퇴를 통하여 실업률을 저하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노동자의 퇴장이 실업노동자들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음으로써 조기은퇴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는 못했다.

유럽연합 12개 회원국의 연금관련 실지불액은 1980년부터 1994년 사이에 59%가 증가하였다. 현재의 연금체계가 유지된다면 2050년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랜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의 경우 연금관련 지출액이 GDP의 11~1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영국과 미국은 연금관련지출이 GDP의 10%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이 두 국가군 사이에 존재하는 부양비와 연금지급대상 규정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당면하여 많은 국가들이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같은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유효성은 제한적이다. 유럽국가들의 은퇴연령을 비교해 보면 절반정도의 국가에서 남자들은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는 55~59세에 연금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표 6 참조). 개발도상국의 은퇴연령은 선진국의 경우보다 낮아서 남자의 경우 60~64세, 여성의 경우는 94%가 64세 이하이다.

표 6. 은퇴연령의 분포(1997년 전후)

(단위: %)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전체	국가수
선 진 국	남성	0	0	49	51	100	51
	여성	0	35	33	31	100	51
개발도상국	남성	5	30	52	13	100	105
	여성	9	44	42	6	100	105

자료: ILO, *Estimates and Projection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1950~2010, 1997.

라. 보건의료

인구고령화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분야로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80세 이상 연령군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연령군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젊은 연령군의 2.5~5배 정도이고 80세 이상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욱 크다. 아직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만성질병과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후기노인의 증가에 따라서 병약한 노인을 돌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관련 비용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몇몇 국가의 경우는 병원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널싱 홈(Nursing Home),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의 수를 증대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3. 사회적 측면에서의 영향력

가. 가족구조와 주거형태

출산력 저하, 이혼·재혼·동거의 증대, 여성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가의 증대, 산업화와 도시화와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가족과 가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20

세기 후반은 가구규모의 감소와 1인가구의 증대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대여명의 증대에 의해서 2, 3, 4세대 가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아직 노인의 대다수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

고연령층에 있어서 독거는 대부분 여성들이 경험하는 현상으로, 60세 이상 남성의 15%만이 혼자 살고 있는데 비하여 여성의 39%가 혼자 살고 있다. 또한 출산력의 저하에 의하여 친족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부양자의 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비공식 부양자의 감소는 공적 영역에 부양관련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노인들의 부양은 대부분 가족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여성들이 대부분 부양자임을 의미한다. 특히 취업여성들은 직장에서의 역할, 자녀양육, 노부모 부양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가족부양자에 대해 비공식적인 지원체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오스트라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는 저렴한 '노인공동주택'이 있고, 말레이지아, 싱가포르의 경우는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공공주택 분양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시설입소에 대한 대안으로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도 있다. 현재 개발도상국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은 비공식 체계를 약화시키지 않고 과도한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지 않으면서 공적인 소득유지체계로 움직여 가는 것이다.

나. 노인들의 사회·경제상태

노인들의 경제사회적 지위는 연금체계 덕분에 향상되었지만 아직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빈곤경험률이 높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기간이 짧고 단속적이며, 파트타임직이나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전생애 소득이 남성보다 낮고, 그들의 재산권이나 재산상속에 있어서 남성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고령자가 소득활동 가능성과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생산적인 노화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파트타임 고용에의 접근성 제고, 평생교육의 증진, 자원봉사활동, 가족부양지원 등에 의하여 생산적인 노화가 증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노인에 대한 선입견이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정책과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한다.